

권기옥 여성 애국지사

‘대한민국 최초 여성비행사로 독립운동 활약’

권기옥(基玉·1901~1988·대한 제국평양출신·대한독립군대령 예편·대한민국부인회 사교부장역임)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여성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함은 물론 그 어느 독립운동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사의 꿈을 여성의 몸으로 도전하여 한국인 최초의 여성비행사가 되어 일본 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가 하였고, 심지어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만나 일본 황궁을 폭파시키겠다고 비행 한 대를 요구하는” 여장부의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선생은 일제의 의해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독립의 그날까지 끊임 없이 독립운동에 청춘을 바친 애국철인의 여성이었다.



△권기옥 여성애국지사 제26주기 추모제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하고 있는 안동권씨 서울 청년회 권대진 수석 부회장과 임원진 일동

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공식기록인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공군 박물관의 자료실이나 국가보훈처 자료집에서 선생을 한국최초 여성비행사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19일 오후2시경 동작동 국립묘지 제26주기 추모행사에 권응열 고문의 추모식 제의로 안동권씨서울청장년회 관대진 수석부회장을 비롯 승열 감사, 순용 사무국장, 순길 회원등이 함께하여 애국지사의 권문(權門)의 할머니 묘소를 엄숙히 참배하게 되었다. (자료제공:서울청장년회 권순용 사무국장/ 권범준 본원기자)

진보중친회 정기총회

진보중친회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 ‘진보잡배’ 식당에서 축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문오 총무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봉갑 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감사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구오씨, 감사에 권영두, 용기씨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 권영선, 태만 총무에 오석씨가 선임되어 기념촬영 후 산회했다.



△진보중친회총회에서 권구오 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권혁세 기자)

안동 일직중친회 정기총회

안동 일직중친회(회장 권대박)는 지난 4월18일, ‘일직숯불잡배’ 식당에서 축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상례행사에 이어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권대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 대동단합해 권문의 자부와

금지로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으며, 권재주 안동중친회회장의 축사에서 있었다.

이어 권회동 감사의 감사보고와 기섭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기타 토의로 회의를 모두 마쳤다. (권혁세 기자)

영덕중친회 제 58차 정기총회

권 병 윤희회장 유임

영덕 중친회(회장 권병윤)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영해면 괴시2리 영덕중친회관에서 권중문, 오철 고문 등 남아축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영덕중친회 정기총회에서 권병윤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신기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예절교육강사 권순갑씨를 소개했으며 권병윤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로 임기가 끝나니 덕망있는 새 회장을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위갑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서 새 회장에 권병윤희회장, 감사에 권영해, 위달씨가 유임되었다.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권순갑 강사로 △가가례(家家禮)△기제(忌祭)바르게 지내기△안동권씨득성유래 등으로 2시간여에 걸쳐 보학강좌가 있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병윤, △부회장 권성덕, 용승, 오성, 효준, 수복, 오하, 숙금(女) 옥해(女) △감사: 권영해, 위달 (권혁세 기자)

청주·청원청장년회 월례회

2015 전국체전 주관을 앞두고 청주·청원청장년회(회장 권광택)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 30분, 청주시 북명동 소재 「창마루」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월례회를 가졌다.



△청주·청원청장년회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권광택 회장은 내빈으로 권계주(대중원 부총재·전국지역청장년협의회회장), 권오복(대중원 편집위원) 권순용(서울 청장년회 사무국장)을 소개했으며, 이어 인사말을 통해 바쁜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세월호」 참사사고로 인하여 전국 청장년회 문화행사가 10월 18일로 연기되었으며, 명년, 청주개최에 많은 자문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계주 전국지역청장년협의회회장은 인사에서 지난 4월 5일 청장년협의회 발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되었으며, 오는 청주지역 축전어르신들을 뵈게 되어 반가우며 앞으로 대중원, 중친회, 청년회간 유대강화에 노력코저하오니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토의로 문사에 퇴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석식으로 축의를 두텁게 했다. (편)

가일입향조 참의공문중 정기총회

가일입향조 참의공문중은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 가일중택에서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대승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가 있었으며 총무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기타 토의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대승씨가 선출되었으며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대승 △부회장: 권대승, 대동, 대경, 지섭, 세영, 대일, 기욱, 대봉, 순환 (권혁세 기자)



△권대승 회장

△총무: 권중갑

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으며, 매년 입금은 내병조에서 비친 버드나무를 마찰하여 일으킨 불을 궁중에 있는 관청과 대신 집에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상 숭배였다. 왕실에서 종묘제향을 지내고 종묘에서 제물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문종24년(1070년) 한식과 연등날짜가 겹치므로 연등을 다룬 날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고려전기에는 한식이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식에

祀)를 지내기도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성묘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이때 서울지역에서는 제사에 앞서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성묘의 대상은 기제사(忌祭祀)를 지내지 않는 먼 조상이나 후손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꿈쩍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손을 대도 밟지 않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소에 개사초를 하거나 비석(碑石) 또는 상석(床石)을 세우거나 이장을 한다.

이렇듯 성묘와 산소를 보기의 풍속이 유지되는 데에는 한식이 식목일과 겹치며, 얼마 전까지 식목일이 공휴일인 점도 크게 이바지 했다. 유난히 일찍 개화(開花)한 금년에는 우리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꽃구경을 겸 해 조상의 묘를 찾아보자 또 요즘은 각 가정의 장례절차에 따라 화장 후 남골공원(納骨公園)에 모신 가정, 지정된 나무 밑에 모신 경우, 바다의 모신 집안 등등 장례문화(葬禮文化)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쩌면 매년 한식에는 조상을 섬기고 기리는 마음을 되살리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중이다. (성공관 전례사 권정택)

잊혀져 가는 한식寒食이야기

4월5일 식목일(植木日)도 공휴일 지정이 끝난 후, 그 행사의 규모나 참가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그나마 주말(土曜日) 휴일이어서 사람이 좀 나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일 한식일(寒食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지방에서나,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집안에선 대부분 조상의 산소를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4월5일 무렵이다. 예로부터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알고 지내왔다. 일정기간 불의 사용을 그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된 한식은 금연일 속식 냉절이라고도 한다. 또한 한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명절이 아니다. 따라서 한식은 2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음력 삼월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2월 한식과 3월 한식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2월에 한식(寒食)이 드는 해는 세월이 좋고 따뜻하다고 여기며, 3

월에 한식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개사초(改沙草: 잔디를 새로 입히는 일)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한식을 언제부터 명절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문종24년(1070년) 한식과 연등날짜가 겹치므로 연등을 다룬 날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고려전기에는 한식이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식에

길림중친회 청년회 창립

길림중친회(회장 권중희)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 길림시 중친회 회관2층에서 중친회 회원들이 모여서 길림중친회 청년회를 설립하였다.권혁신 총무의 사회로 권중희 회장은 청년들에게 우리 권씨 중친회의 중시와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를 하였으며 권오국 고문은 우리 안동권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말 하였다.회의에서는 길림중친회 청년회의 회장은 권성철(37세), 부

회장 권문걸(38세), 총무 권오복(35세)을 선임하고 여러명의 고문을 추대 하였다.청년회는 앞으로 노년회와 협력하여 손에 손잡고 서로가 상부상조 하면서 이땅에서 우리 권문의 역사를 이어 갈 것이며 더욱 빛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다.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축진 간에 우정이 더 한층 깊어지고 세대 간에도 더욱친밀하게 되었다 (권중희 회장)

구미·선산중친회 제37차 정기총회 및 시조묘소 참배

구미·선산중친회(회장 권영하)는 지난 5월10일, 45여 명이 관공버스로 안동 능동재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북야공파조 단소와 시조묘소, 아시조 단소에 주, 과, 포를 진설하고 헌



△구미, 선산 중친회는 시조묘소와 아시조 관소를 참배하고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작하면서 함께 참배했으며 다음 영주 선비촌을 거쳐 귀포에 올랐다. (권혁세 기자)

괴운칼럼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 괴운 권해조



39%만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번 사고는 선주가 안전은 무시하고 이익만 쫓았으며 해운조합과 관련 운항 통제자들의 비정상적인 운항승인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을 중벌에 처하여 다시는 동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사고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선박 운영체제의 총체적인 부실이다. 여객선 관리 지침이 유명무실하여, 출발 전 형식적인 점검과 500톤을 초과 적재했고, 선원이나 승객들이 안전교육 없었으며 초기대응도 미흡했다. 둘째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체계적인 대형사고 처리 컨트롤타워 안전시스템이 미비하였다. 셋째 그동안 관피아들의 유착과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이 가벼웠다. 이번 사건에도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와 안행부의 밀착이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2년 전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승객 4000여 명을 태우고 좌초하여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 탈출당시 배에 있던 300명에 8년형의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여 2007년을 구형했다. 승객의 대피조치도 없었고 먼저 대피한 선장, 선원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넷째 국제적 망신과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었다. 세계 각국에서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표명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으며, 각종 피담과 유언비어 증폭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시켰다.

이번사고를 전기(轉機)로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완벽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최우선적으로 ‘위기관리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화물이 한쪽으로 몰려 균형을 잃고 전원과 엔진이 꺼지고 전체의 복원력을 잃어 침몰하였다. 화물도 허술하게 매었고, 선박도 2012년 10월 일본에서 구입하여 탑승정원 840

동정



▲권태신(前 국무총리조정실장) 한국 경제연구원은 지난30일 오후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 논의 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권순찬 교수의 논문이 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권박사의 논문은 세계3대 의학대전에도 등재된 바 있으며 뇌혈관 질환의 협관내 수술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의만 집도할 수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의학도들이 권박사의 집도를 관전하기 위하여 참관 및 연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권박사는 경남 산청출신으로 부산중친회 권임주 부회장의 장남이다.



▲지난8일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는 올해 발전공로상에 권오준 회장이 수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지난5월13일자 중앙일보(오 피니언 B11면) 경제



▲권순환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베이징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원에서 열린 화정평화재단 국제세미나에서 1990년대 만해도 한일 간 갈등을 일본국내에서 부각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지금은 우경화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나 개헌문제까지 군국주의부활이 우려되는 것은 과하다고 하였으며 일본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본에 불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조해야한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등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한다. 국민들도 각자본분과 국가시책에 더욱 충실하고 안전과 준법정신, 남을 배려하는 국민정신개조 변화운동에 나서야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한 달이 넘도록 우리사회는 ‘집단 멘붕’에 빠졌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련회사의 비리,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지만 우리사회의 총체적 병폐의 표증으로 국민모두의 책임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위주 정책과 허상의 평화주의에 취하여 부정부패, 계층과 이념갈등으로 사회기강과 기본질서, 가치관이 무너지고 정부의 안전장치마저 허술하여 생인 예고된 사고였다.

앞으로 신뢰사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시태어나길 바라며, 세월호에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기원한다.